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의원, 예산안

심의회서 군정 개선방향 요구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의 안건의 진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예산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됐다.

특히, 교육청소년과 A과장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발전기금 5억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통해 2022년 600만원, 2023년 400만원으로 존속기금 5년 연장을 놓고 1건사업을 하면서 사업지조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을 지적, 폐기하고자 한 것을 김두례 의원이 2년으로 단축해 수명 유지만 했다는 것.

이어 박병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이 성을 합쳐 양성평등사업 과정에서 군에서는 남녀 비율을 맞춰야 하는 행사를 여성만 하는 게 맞는지 행사나 담당과장과 팀장에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타를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세계유산도시 고창'

사진 공모전 시상식

고창군이 지난 8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8분의 해'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중요롭고 찬란한 고창을 담다'를 주제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주제의 적합성, 독창성, 심미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 결과 총 61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날 금상은 '줄타기(권경용)'이 선정됐다. 은상으로는 '도솔계곡 설경(전기홍)', '고인돌공원의 수련(김형학)'이, 동상은 '향산리 고인돌(김강예)', '어울림(염경선)', '뽕밭 저수지의 봄(류재훈)'이 선정됐다.

가작은 '불심(김철호)', '안개 낀 운곡습지(김승진)', '조개개기(강미자)', '화려한 군부(송종문)', '청보리밭 축제(서용수)'가 뽑혔고, 입선 50점을 포함하여 총 1150만원의 시상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개소

정읍, 도시재생시설 운영

정읍시의 도시재생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정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8일 쌍화차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유육경)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정심 마사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심 마사회는 샘고시장과 주변 거리 상가의 발전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시설물인 체험관리시설, 휴게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운영·관리하게 된다.

정심 마사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샘고를 띄어 올린 플랫폼, 쌍화차 커뮤니티 라운지, 숲 문화관, 패브리카트리아트리, 메이플게스트하우스 등이다.

시는 도시재생시설물을 주민들의 자

발적 참여와 소통, 주변 상가의 협력을 유도해 구도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난 10월 정심 마사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학수 시장은 "도시재생거점시설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이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구도심의 회복과 지역활력을 위해 주변 상가 등과 협력하고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농업기술센터에 최종 선정됐다.

고창농기센터, 최우수농기센터상 수상

농업용드론 자격취득 교육·스마트팜 단지 구축 등 좋은 성과 내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가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농업기술센터에 최종 선정됐다.

고창농기센터는 지난 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성과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평가·시상하여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고창센터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및 농업용드론 자격취득 교육, 읍면별 농업용 드론 지원, 스마트팜 단지 구축 등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버 육묘상자처리제, 긴급공동방제,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 지원 등

농작물 안정생산 지원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지원 등 현장으로 기술 보급 △농작업 안전교육 및 농작업 재해예방 최우수상 수상, 사회기관 연계 농촌치유?체험 활성화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모임, 청년농업인 체계적인 육성 등 농촌지도사업 전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으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야하는 어려운 평가인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준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부안우체국,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

우체국쇼핑몰서 양지생생마을 공동체 누룽지 3천개 완판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임선옥)은 부안군 노인일자리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적극 판매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앞장섰다.

부안군은 고령화 비율 36.1%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노인 일자리 제공 및 빈곤 해결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형 일자리 247개를 포함 총 1,847개의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

다.

또한, 부안군·우체국·대한노인회 부안군지부는 상호업무협약을 통해 노인일자리 제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8일에는 양지생생마을 공동체의 유채꽃 누룽지 3천개를 우체국쇼핑몰에서 판매 1인당 약 70만원의 추가 소득을 안겨주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이날 양지생생마

을 공동체를 찾아 유채꽃 누룽지 출하에 분주한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구성 및 안정적인 판로지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선옥 부안우체국장도 우체국의 유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제품의 판로지원 및 맞춤형 인큐베이팅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녹두한우, 국산 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 대상

3년 연속 수상 명예의 전당 등극

정읍시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이 제3회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콩 재배 농가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 우수 생산단지 발굴을 통해 고품질 다수확 재배 기술을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2021년부터 우수 생산단지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1~2회 대회에 우수상을 수상한 녹두한우는 이번 대회에서는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시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됐다.

더불어 1회부터 3회까지 3년 연속 수상해 전국 최초로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는 경이사를 누렸다.

녹두한우는 참여 농가가 84ha의 논콩을 재배하며 퇴비를 활용해 지력을 높이고, 표준화된 재배기술과 공동경영 노하우로 논콩 재배의 집산화·규모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읍시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이 제3회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6~7월 계속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10ha당 427kg의 높은 수확량을 얻는 등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정읍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3년 연속 국산 콩 우

수생산단지 대회에서 수상해 정읍이 국산 콩 최고 생산단지로 인정받았다"며 "고품질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반기 특교세 30억원 확보

권익현 부안군수 중앙부처 방문 특별교부세 확보 최선

부안군은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군은 중앙부처와 정지권 등을 통해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했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용균 재난안전정책국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비도시지역(적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8억원), 계화면 하수관로 정비사업(7억

원) 등 2건의 지역현안사업과 진서면 연동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9억원), 하서면 청호리 계곡저수지 보수보강사업(4억원), 변산면 중앙저수지 원격 계측경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 3건의 재난안전사업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군 주요 당면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군민의 안전에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국비 등 재원 확보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신청 확보한 28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올해 9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